

목포시, 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안전 도시’ 만든다

전담 인력 충원 상시 운영 체제…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
교량·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87개 안전 취약시설 점검도

목포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6명을 신규 채용해 3교대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 대응과 유기적인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 전담 인력은 재난 유형별 상황 접수, 유관기관 협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하며 지역 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라는 원칙 아래 매년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

공사업장 및 민간위탁 현장까지 포함하는 종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법령 준수, 안전 수칙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목포에서 치러지는 전국 규모 행사와 축제 개최를 위해 12회의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교량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87개 안전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또 축제 개최 전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목포지역 227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125개의 그늘막, 쿨링포그 2개소, 살수차 2대를 운영 중이다. 또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시우량(時雨量) 30㎜ 초과 발생 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예찰활동과 비상근무에 전념한다.

목포시는 안심 방온 도시를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 영상분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최첨단 관제시스템 도입과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와 함께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재난 및 사고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 영상은 6월 중 목포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문자 전송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65일 시민과 소통하며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모습. <목포시 제공>

귀뚜라미그룹, 해남 인재 육성 장학금 5000만원

중·고생 70명에 전달…40년째 진행

귀뚜라미그룹이 해남 지역 학생 70명에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귀뚜라미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에서 학업장려와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1985년부터 중단없이 이어져 올해로 40년째 진행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의 해남군 장학금 지원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2023년 6000만원, 올해 5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이 지급됐다.

장학금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씩이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귀뚜라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꿈나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난달 30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해남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는 “장광의 인재들이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데 장학사업이 매우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 모든 군민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

다”며 “귀뚜라미 장학생이라는 이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인재 육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외국인 숙련공 한국문화 교육 정착 지원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선정

진도군이 최근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에 선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의 교육 제도로,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운영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인정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

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진도군은 올해 새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법무부가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는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며 배우자의 취업 활동 허용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진도군의 지역학습관 선정을 통해 관내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련 인력의 지역 정착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진도군의 생활 인구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선정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진도군이 지속적인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공직윤리 준수’ 다짐 해남군, 청렴 캠페인

해남군이 윤리의 날(6월 2일)을 맞아 청렴윤리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해남군 공직자들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공직윤리 함양을 통해 해남군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해남군은 민원인과 공직자들이 많이 오가는 군청사 남문에 청렴윤리 포토존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결재판과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공직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문화형 청렴교육, 청렴골든벨, 청렴주의보,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강화, 청렴 서한문 및 청렴 해피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으로 더 투명한 해남군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윤리의 날을 맞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해남군 공직자들이 청렴윤리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군수를 포함한 해남군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자”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확대 운영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6월 한달간…사전 출고제도

무안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이용 편의 증진과 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6월 한 달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6월까지 평일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른 아침 농기계 수령에 불편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사전 출고제’를 함께 운영해 임대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농기계를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영농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도 연중 운영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향금 무안군 농촌지원과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탄력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기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 구축’ 본격화

유휴부지 20kW급 발전시설 설치…발전수익, 마을 기금 활용

영광군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확립과 마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마을 단위 태양광발전소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마을 내 유휴부지에 2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발전수익을 마을 기금 등으로 활용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 남해군의 마을 태양광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설치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지난달 19일에는 참여 마을 모집 공고를 했으며, 향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마을 조합 구성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 신재생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완도군, 경력 단절 여성에 취·창업 교육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과정 신설해 3개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이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완도군은 지난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통해 교육생 27명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취업하고 1명이 창업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교육과정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 등 총 3개이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은 15명의 수강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7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과정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개설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은 목포 YWCA와 협력해 관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포나 여수 등 타 지역 교육기관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교육 참여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50-5292)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도자기 작품 감상하고 공부하며 힐링~

영암도기박물관, 9~16일 ‘내 마음속 풍경소리’ 참가 단체 모집

영암도기박물관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찰랑찰랑 내 마음속 풍경소리’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16일까지며 영암의 유아·초·중·고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특별기획전 ‘도자, 형을 빚다’와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6~8월 매주 화·금요일 박물관 기획 전시실 등에서 1시간 가량 외부 전문가와 보조강사의 도움으로 도자기 형태, 조형미 등을 공부

하고, 특별기획전 작품을 감상한다.

여기에 자기 감정과 사물 이미지를 도자기에 꾸미는 체험활동에 나선다.

영암도기박물관은 1회에 30명 이내로 총 4회를 운영해 120여 명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단체는 신청서·참가자명단 등을 작성해 영암도기박물관 이메일(shyakara9774@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해충 방역

드림스타트 사업…45가구 대상 8월까지 서비스

신안군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 45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해충 방역 서비스 지원한다.

신안군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섬 지역의 특성상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로 해충 번식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지난 3월 해충 방역 전문 업

체 ㈜케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충 관리 전문가는 서비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오염 발생 구역과 해충 서식지를 점검하고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소독 서비스를 각 가정에 2회 제공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